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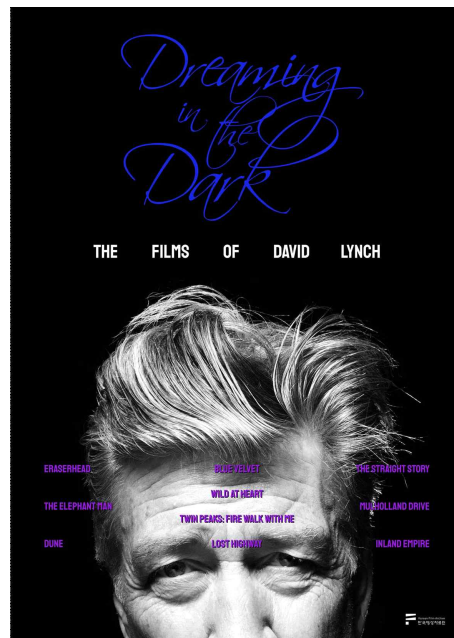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매혹적인 꿈의 체험, 데이비드 린치 특별전 개최!

오는 8월 2일부터 'Dreaming In the Dark: 데이비드 린치' 특별전 개최
 <멀홀랜드 드라이브>, <트윈 픽스: 더 미씽 피시즈> 등 대표작 10편 전격 상영
 <사구(툰)> 상영 이후 원작 소설, 영화화 작품 비교 분석 대담 진행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오는 8월 2일(금)부터 8월 14일(수)까지 시네마테크KOFA(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데이비드 린치 대표작 중 디지털화/복원작 10편을 상영하는 'Dreaming In the Dark: 데이비드 린치' 특별전을 개최한다. SF 전문가 심완선 평론가와 서강범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사구(툰)> 상영 이후 원작 소설, 영화화 작품을 비교 분석하는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Dreaming In the Dark: 데이비드 린치> 특별전 포스터

□ 어둡지만 매혹적인 꿈의 체험, 데이비드 린치의 작품 세계

1946년 몬태나주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린치는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던 유년기를 거쳐 화가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회화를 공부한다. 1966년 필라델피아 미술아카데미에 재학 중이던 그는 우

연한 계기로 스톱모션 단편영화 <6명의 아픈 사람들(Six Figures Getting Sick)>을 만들면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멈춰있는 자신의 그림이 움직이기를 원했던 데이비드 린치는 회화적이면서도 파편화된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자기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후 1971년 LA로 이주해 미국영화연구소(AFI) 영화학교의 MFA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공부하기 시작한 린치는 지원금 1만 달러를 기반으로 첫 장편영화 제작에 나서고 5년에 걸쳐 <이레이저 헤드>를 완성한다. 데뷔 이후 장르와 매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구축한 린치만의 부조리하고 난해한 작품 세계는 선형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매혹적인 '꿈'의 체험을 선사한다.

□ 데이비드 린치의 대표작 중 디지털화/복원작 10편 상영

이번 기획전에서는 데이비드 린치의 장편 데뷔작인 <이레이저 헤드>부터 <트윈 픽스: 더 미씽 피시즈>까지 총 10편의 장편을 상영한다. 열악한 제작 환경으로 인해 5년 만에 완성한 데뷔작 <이레이저 헤드>는 장기 심야 상영을 통해 컬트 팬들을 양성하며 린치 작품 세계의 시작을 알렸다. <엘리펀트 맨>은 실존 인물 존 매릭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남다른 외양 안에 깃든 고귀한 영혼을 그려낸다.



▲ <엘리펀트 맨>(1980) 스틸

<사구(툰)>은 프랭크 허버트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개봉 당시 흥행에 참패하였지만, 이후 관객을 매혹하는 린치만의 초현실적이고 감각적인 묘사로 재평가되었다. <블루 벨벳>은 컬트 영화감독으로서 데이비드 린치의 명성을 되찾은 동시에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작품으로 이후 이어지는 작품의 여러 모티프를 배태하고 있다. ABC 시리즈 <트윈 픽스>로 폭발적인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며 같은 해 선보인 <광란의 사랑>이 논란 끝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 <로스트 하이웨이>(1997) 스틸

O.J 심슨 사건과 비디오로 촬영으로 증폭된 로드니 킹 구타 사건에 영향받은 <로스트 하이웨이>는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지우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순환하는 린치 세계의 중간 결산과 같은 작품이다. 잔디깎이를 타고 형을 만나기 위해 여정을 떠난 앨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드무비인 <스트레이트 스토리>에 대해 린치는 인터뷰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한 실험적인 영화"라 언급한 바 있다. 꿈, 상상, 무의식 등의 세계가 뒤섞이며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영화적 경험 그 자체를 선사하는 <인랜드 엠파이어>는 소니 PD-150의 SD 화질의 흐릿한 질감이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트윈 픽스: 더 미씽 피시즈>(2014) 스틸

상영작 중 <트윈 픽스: 더 미씽 피시즈>는 영화 <트윈 픽스: Fire walk with me>에서 삭제된 씬만을 모아 완성한 작품이다. 린치와 트윈 픽스 시리즈의 팬들이라면 국내에 공개되지 않아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자세한 상영 일정은 영상자료원 홈페이지(<http://koreafilm.or.kr/cinema/program.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상영은 무료이다. (*금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

[참고자료] 프로그램 개요

<Dreaming In the Dark: 데이비드 린치>

- 기간: 2024년 8월 2일(금) ~ 8월 14일(수)
-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상암동 소재)
- 입장료: 무료
- 상영작: <이레이저 헤드>(데이비드 린치, 1977) 등 10편 상영

번호	제목	감독	제작년도
1	이레이저 헤드	데이비드 린치	1977
2	엘리펀트 맨		1980
3	사구(툰)		1984
4	블루 벨벳		1986
5	광란의 사랑		1990
6	로스트 하이웨이		1997
7	스트레이트 스토리		1999
8	멀홀랜드 드라이브		2001
9	인랜드 엠파이어		2006
10	트윅 픽스: 더 미씽 피시즈		2014

[대답]

- * 주제: 데이비드 린치 <사구(툰)>와 프랭크 허버트, 드니 빌뇌브의 <툰>
- * 일시: 8월 10일(토) <사구(툰)> 상영 이후
- * 대담자
 - 심완선 (SF 평론가)
 - 서강범 (『우리가 기대하는 멸망들』 저자)